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2월
석사학위논문

『논어』에 나타난 배움[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이정애

『논어』에 나타난 배움[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arning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2017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이정애

『논어』에 나타난 배움[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철승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이정애

이정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설현영(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재경(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철승(인) 

2016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논문초록	ii
제1장 서 론	1
제2장 배움[學]의 개념	5
제1절 ‘學’의 문자적 의미	5
제2절 『논어』의 배움[學]	6
제3장 배움[學]과 생각[思]	11
제1절 수양(修養)과 배움[學]	11
제2절 배움[學]과 생각[思]의 관계	14
제4장 배움[學]과 익힘[習]	17
제1절 배움[學]의 방법	17
제2절 배움[學]과 익힘[習]의 지향	19
제5장 결 론	23
【참고문헌】	25

ABSTRACT

A Study on the Learning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Lee Jeongae

Advisor : Prof. Lee Cheol Seung, Ph.D.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d the original meaning of 'learning' shown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and relations between learning and thinking, and learning and mastering. Confucius considers learning as an important area to make the peaceful world. To Confucius, learning is to express benevolence eventually.

Emphasizing the complementary relation between learning and thinking, he orders the organic combination between active learning and independent thinking. He also aims for the process of learning by practicing the contents learnt.

In the ancient times of China, learning was closely related with teaching by interpreting it as the same meaning. According to the 『Analects of Confucius』, learning is emulating, which is to realize an ethical life by emulating the saint's life.

As the benevolence which is the core thought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contains diverse meanings, it could be interpreted variously. In summary, however, it is to go back to the courtesy by loving humans and overcoming one's selfish interest. According to him, loving humans is the interest in and consideration for others while going back to the courtesy is to practice virtue in

daily life by overcoming individual's selfish interest. When such practices are expanded from families to society, a healthy community is formed.

However, the concept including all of them is to learning which is about realizing the value of benevolence and then continuously working hard to accomplish it. Therefore, lots of knowledge is not good enough to acquire Confucius' learning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It is the process of practicing an ethical life by endlessly repeating the contents learnt. To Confucius, the concrete practice of benevolence is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based on self-cultivation. Making people comfortable by cultivating oneself is to point out the importance of organic relations between individual and society.

The meaning of learning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is the process of cultivating one's personality by emulating what pioneers have realized and then realizing the principle of life.

제1장 서 론

공자는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정치가, 교육자이다. 그는 유학의 창시자이자 최초로 사학(私學)을 번창시킨 인물로 인류의 스승,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그는 나이 열 다섯 살에 배움에 뜻을 두어¹⁾ 배움을 계을리 하지 않았고, 평생 동안 교육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그가 가르칠 때는 신분의 차등을 두지 않고 가르쳤다.

공자가 살던 춘추시대는 혈연과 씨족으로 조직된 봉건체제가 붕괴되면서 천하의 질서가 어지럽혀졌다. 이 시기는 철제농기구의 등장으로 생산력의 증가에 의해 신흥세력들이 늘어났고 그 신흥세력들은 기존의 질서체계의 상징인 주나라의 예법을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으로 여겼다. 공자는 이러한 시대 상황을 예와 악이 무너진 어지러운 혼란국면으로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공자는 “천하에 도(道)가 있으면 예악과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악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온다”²⁾라고 하면서 불만과 우려를 나타냈다. ‘예·악·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은 정치와 사회의 질서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예·악·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은 예악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공자는 당시를 ‘천하무도(天下無道)’의 시대라고 평가했으며,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아 정상상태를 회복하는 ‘천하유도(天下有道)’의 시대로 만들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의 말과 행동은 모두 이러한 목표를 위한 것이다.³⁾

세상이 무도(無道)하기 때문에 혼란한 세상을 개혁하여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도를 세우는 유도(有道)이다. 도가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사회에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가를 공부하여야 한다. 이 공부는 바로 도에 대한 공부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책에서 도를 배우는 것은 그것을 세상에 실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배움에 뜻을 둔다’ 함은 ‘도의 실현에 뜻을 둔다’는 말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배움에 뜻을 둔다.’·‘도에 뜻을 둔다’함은 ‘도의 실현을

1) 『論語』「爲政」: 吾十有五而志于學. 참조.

2) 『論語』「季氏」: 天下有道, 則禮樂征伐, 自天子出, 天下無道, 則禮樂征伐, 自諸侯出.

3) 풍우란, 『중국철학사』, 박성규 옮김, 까치글방, 2015, 101~103쪽 참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살기 좋은(有道) 세상으로 바꾸는데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 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배움’이 시작된다. 곧 스스로 분발하여야 배움이 가능하다.⁴⁾

정치 질서는 무력으로 확립될 수 없다. 그래서 공자는 무력과 전쟁·경제적 약탈·잔혹한 통치는 반대하고, 예악 교화를 강조하여 덕으로 백성들을 따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덕성(德性) 공부의 길을 열었고, 올바른 명분[正名]으로 정치 문제를 해결하였다.⁵⁾

공자는 예(禮)를 인(仁)을 행하는 방법으로 여겼다. 그는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⁶⁾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묻는 안연의 질문에 그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⁷⁾라고 하였다. 그에게 인간의 행위 규범에 관한 것은 모두 예이다.⁸⁾ 그런데 예가 요구되는 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관계 규정들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예는 배움과 긴밀하게 연결된다.⁹⁾

공자는 『논어』에서 “십 실(작은 마을)의 고을에는 반드시 충(忠)과 신(信)이 나와 같은 자가 있지만, 내가 배움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¹⁰⁾라고 하여, 스스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칭하였다. “배우고 때에 맞게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¹¹⁾라는 『논어』의 첫 구절만 보더라도 그가 배움[學]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배울 때에 맹목적으로 배우는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배울 것과 주체적인 생각을 병행할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배움은 기쁨으로 이어진다. 배움[學]과 생각[思]은 보완적 관계이다. 『논어』에서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¹²⁾라고 지적한 내용이 이를 말한다.

4) 박성규, 「공자의 학문론-“學而不固”의 해석을 중심으로」, 『공자학』11권, 2004, 30~31쪽 참조.

5) 채인후 지음, 『공자의 철학』, 천명돈 옮김, 예문서원, 2000, 89~90쪽 참조.

6) 『論語』『顏淵』: 克己復禮爲仁.

7) 『論語』『顏淵』: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8) 풍우란, 『중국철학사』, 박성규 옮김, 까치글방, 2015, 116쪽 참조.

9) 알프레드 포르케, 『중국고대철학사』, 양재혁·최해숙 역주, 소명출판, 2004, 212~213쪽 참조.

10) 『論語』『公冶長』: 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

11) 『論語』『學而』: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12) 『論語』『爲政』: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그러나 배우고 생각하고, 혹은 생각하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배움’을 완성할 수 없다. 배운 내용이 체득이 될 때까지 삶 속에서 꾸준히 익히고[習] 행하지 않는다면 배움의 의미가 없다. 공자는 인간이 살면서 배운 내용을 끊임없이 행하며 살아가는 이상적인 인간형인 군자의 삶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배움[學]과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임현규는 배움의 의미를 기술지(技術知)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 기학(器學), 교양과 인격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학, 그리고 도의 인식과 체득을 목표로 하는 도학(道學)으로 나누었다.¹³⁾ 이경무는 배움의 세 가지 활동을 식(識)·효(效)·각(覺)으로 구분하였는데, 개념적 이해나 지식을 탐구하는 의미인 알아냄[識], 윤리적 행위와 인간관계의 형성을 지향하는 본받음[效], 배움의 완성 단계인 깨달음[覺]으로 구분했다.¹⁴⁾ 서근식은 배움이 ‘기쁨[說]’·‘즐거움[樂]’·‘군자다움(君子)’ 및 인과 연결되어 올바른 관계맺음을 의미한다고 했다.¹⁵⁾ 임원빈은 배움을 덕행과 같은 직접 경험 및 독서와 같은 간접 경험으로 생각한다.¹⁶⁾ 서세영은 배움의 의미에 대해, 인을 실현하는 것으로 여겼다.¹⁷⁾ 신창호는 원시유학에서 배움의 의미와 그 본질을 규명하였고¹⁸⁾, 이철승은 주희와 왕부지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논어』의 배움과 익힘의 관계를 분석했다.¹⁹⁾ 심승환은 배움과 생각의 관계가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했다.²⁰⁾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논어』에 나타난 배움의 어원과 의미를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논어』의 ‘배움’을 ‘생각’ 및 ‘익힘’과 연결하여 고찰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 성과들에 힘입어 제2장에서 學자의 문자적 의미를 알아본 후 『논어』에 나타난 배움의 의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學자가 갖는

13) 임현규, 「『논어』에서 學의 의미」, 『東方學』제33집, 2015.

14) 이경무, 「‘학(學)’과 공자 인학(仁學)」, 『동서철학연구』제43호, 2007.

15) 서근식, 「『논어』『학이』 1장의 解釋學的研究」, 『동양고전연구』제32호, 2008.

16) 임원빈, 「공자의 ‘학(學)’에 관한 연구-『논어』를 중심으로」, 『공자학』제1집, 1995.

17) 서세영, 「『논어』에 나타나는 배움의 의미」, 한국외대 석사논문, 2009.

18) 신창호, 「동양의 교육 전통에서 ‘배움’의 의미-원시유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철학』제33집, 2007.

19) 이철승, 「『논어』의 ‘학이’ 1장에 나타난 배움과 익힘의 논리와 의미-주희와 왕부지의 관점을 중심으로」, 『중국학보』제59집, 2008.

20) 심승환, 「공자의 교육사상에 나타난 ‘배움(學)’과 ‘사고(思)’의 관계에 대한 고찰」, 『교육철학』제47집, 2010.

배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할 것이다. 제3장 배움과 생각에서는 공자가 배움을 주체적인 생각과 어떻게 연관 짓고 있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제4장에서는 공자가 지향하는 배움의 실현이 결국 인을 행하는데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배운 것을 익혀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논어』에 나타난 배움[學]을 생각[思] 및 익힘[習]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여, 공자가 말한 배움[學]의 참된 의미를 파헤치려고 한다.

제2장 배움[學]의 개념

제1절 ‘學’의 문자적 의미

‘學’자의 문자적 의미를 알아보면 學(學)은 그 구성요소가 積(爻), 구(臼), 隅(乚), 자(子)로 이루어져 있다. 글자의 윗부분은 구(臼) 안에 積(爻)가 들어 있는 형상이다. 구(臼)는 원래 양손[爻+爻]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으로 두 손으로 무엇인가를 움켜잡고 있는 형상이다. 구(臼)는 ‘쌀 찧는 절구’를 본뜬 상형문자이다. 積(爻)는 음양(陰陽)으로 상징되는 사물의 근원적 요소가 서로 얹혀 있는 모습이다. 學자의 윗부분은 곡식을 방아 찧듯이 무엇인가를 가공한다는 뜻으로 새길 수 있다. 學(學)의 중간 부분 隮(乚)은 ‘물건을 덮은 모양’을 표현한 글자이다. 그 아래에 있는 자(子)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천에 물건이 가려진 것처럼 아직 깨우치지 못한 상태로 무지몽매(無知蒙昧)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學자는 아직 깨우치지 못한 어린 아이, 혹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직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 점차 깨우쳐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²¹⁾

『설문해자』는 學자가 積(爻)에서 복(支)이 생략된 글자라고 했다.²²⁾ 支은 갑골문에서 손에 막대를 들고 무엇인가를 치는 모양을 그린 것이다. 이 ‘복’자는 회초리로 때리며 가르치는 모습을 묘사한다고 풀이된다. 또한 “고야왕(顧野王)의 『옥편(玉篇)』에서 累는 教이고, 學은 수교(受敎)하여 각오(覺悟)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教자와 學자가 근원이 같은 글자라는 것을 보여준다.”²³⁾ 갑골문에서도 學자를 “아이에게 집짓기를 가르치는 글자다.”²⁴⁾라고 하였다.

『예기』 「학기」의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한다. 사람이 배우

21) 신창호, 「동양의 교육 전통에서 ‘배움’의 의미 - 원시유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33집, 2007, 143쪽 참조.

22) 이철승, 앞의 논문, 326쪽 참조.

23) 이광호, 「공자의 학문관」, 『동서철학연구』 제20호, 2000, 111~112쪽.

24) 김성재, 『갑골에 새겨진 신화와 역사』, 동녘, 2000, 86쪽.

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옛날의 왕이 나라를 세우고 백성에게 임금노릇을 할 때는 가르침과 배움을 우선으로 하였다.”²⁵⁾라는 말은 배움이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비록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먹지 않으면 그 맛을 알지 못할 것이다. 비록 지극한 도가 있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그 선함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때문에 배운 후에야 부족함을 알고 가르친 후에야 곤고함을 안다. 부족함을 안 후에야 스스로 반성할 수 있고, 곤고함을 안 후에야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 따라서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 성장하도록 돋는다. 열명에서 ‘가르침은 배움의 절반이다’고 한 내용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²⁶⁾라고 했다. 『예기』는 이렇게 배움[學]이 가르침[敎]과 유기적인 관계라고 설명한다.

정리하면, 學자는 數자에서 유래하였는데 數자는 學과 敎의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 의해 學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 깨우친다’는 뜻으로 새겨진다. 이때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행위가 ‘배움’이다. 이 ‘배움’의 행위는 學과 敎의 불가분의 관계에 의하여 수동성을 띠고 있다. 이처럼 ‘누군가의 가르침이 전제된 學’으로서 배움은 수동적인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배움의 수동적 의미는 공자에 이르러 능동적인 의미로 바뀐다.

제2절 『논어』의 배움[學]

공자는 『논어』「위정」편에서 “나는 열 다섯에 배움에 뜻을 두었다.”²⁷⁾라고 고백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공자는 어느 특정한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 공자는 ‘스스로’ 배움[學]에 ‘뜻[志]을 두었다.’ 이전까지는 學이 누군가의 가르침이 전제된 배움이었다면, 공자에 이르러서 學은 ‘자발적인 의

25) 이철승, 「『논어』의 ‘학이’1장에 나타난 배움과 익힘의 논리와 의미-주희와 왕부지의 관점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59집, 2008, 326쪽 재인용. (『禮記』『學記』: 玉不琢, 不成器. 人不學, 不知道. 是故古之王者建國君民, 教學爲先.)

26) 이철승, 앞의 논문, 326쪽 재인용. (『禮記』『學記』: 雖有嘉肴, 弗食不知其旨也. 雖有至道, 弗學不知其善也. 是故學然後知不足, 教然後知困. 知不足, 然後能自反也, 知困然後能自強也. 故曰教學相長也. 說命曰‘數學半’, 其此之謂乎.)

27) 『論語』「爲政」: 吾十有五而志于學.

지에 따른 배움'으로 전환된다.²⁸⁾

『논어』에는 學이라는 글자가 64회²⁹⁾ 나온다. 學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많이 등장한 것은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배움의 주제와 대상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배움은 많은 뜻을 포괄·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배움의 의미를 단일한 용어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곧 공자가 생각하는 배움은 배우는자의 성격·필요·관심 등과 구체적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 내용과 방법이 달라진다는데 특색이 있다. 배움은 한편으로 『시』, 『역』 등의

28) 논자는 學의 의미가 공자에 이르러서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배움'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를 배움에 대한 공자의 '간절한' 의지 때문이라고 본다. 이 점에 대해선 나중에 연구하려고 한다.

29) 『論語』에 학(學)자가 나타난 구절은 다음과 같다.

「學而」1장,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學而」6장, 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學而」7장, 子夏曰未學, 吾必謂之學矣。「學而」8장, 子曰 君子不重則威, 學則不固。「學而」14장, 子曰 君子食無求飽, 居無求安, 敏於事而慎於言, 就有道而正焉, 可謂好學也已。「爲政」4장,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爲政」15장, 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爲政」18장, 子張學干祿。「公治長」14장, 子曰 敏而好學, 不恥下問, 是以謂之文也。「公治長」27장, 子曰 十室之邑, 必有忠信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雍也」2장, 哀公問弟子孰爲好學? 孔子對曰 有顏回者好學, 不遷怒, 不貳過, 不幸短命死矣! 今也則亡, 未聞好學者也。「雍也」25장, 子曰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述而」2장, 子曰 默而識之, 學而不厭, 謨人不倦, 何有於我哉? 「述而」3장, 子曰 德之不脩, 學之不講, 聞義不能徙, 不善不能改, 是吾憂也。「述而」16장, 子曰 加我數年, 五十以學易, 可以無大過矣。「述而」33장, 公西華曰 正唯弟子不能學也。「泰伯」12장, 子曰 三年學, 不至於穀, 不易得也。「泰伯」13장, 子曰 篤信好學, 守死善道。「泰伯」17장, 子曰 學如不及, 猶恐失之。「子罕」2장, 達巷黨人曰 大哉孔子! 博學而無所成名。「子罕」29장, 子曰 可與共學, 未可與適道, 可與適道, 未可與立, 可與立, 未可與權。「先進」2장, 文學子游, 子夏「先進」6장, 季康子問 弟子孰爲好學? 孔子對曰 有顏回者好學, 不幸短命死矣! 今也則亡。「先進」24장, 子路 曰 有民人焉, 有社稷焉。何必讀書, 然後爲學? 「先進」25장, 赤! 爾何如? 對曰 非曰能之, 願學焉。「顏淵」15장, 子曰 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子路」4장, 樊遲請學稼, 子曰 吾不如老農。請學爲圃。「憲問」25장, 子曰 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憲問」37장, 子曰 不怨天, 不尤人。下學而上達, 知我者其天乎! 「衛靈公」1장, 孔子對曰 祖豆之事, 則嘗聞之矣, 軍旅之事, 未之學也。「衛靈公」30장, 子曰 吾嘗終日不食, 終夜不寢, 以思, 無益, 不如學也。「衛靈公」31장, 子曰 君子謀道不謀食。耕也, 餕在其中矣, 學也 祿在其中矣。「季氏」9장, 子曰 生而知之者, 上也, 學而知之者, 次也, 困而學之, 又其次也, 困而不學, 民斯爲下矣。「季氏」13장, 陳亢問於伯魚曰 學詩乎? 對曰 未也。不學詩, 無以言。鯉退而學詩。他日又獨立, 鯉趨而過庭。曰 學禮乎? 對曰 未也。不學禮, 無以立。鯉退而學禮。「陽貨」4장, 子游對曰 君子學道則愛人, 小人學道 則易使也。「陽貨」8장, 子曰 好仁不好學, 其蔽也愚。好知不好學, 其蔽也蕩, 好信不好學, 其蔽也賊, 好直不好學, 其蔽也絞, 好勇不好學, 其蔽也亂, 好剛不好學, 其蔽也狂。「陽貨」9장, 子曰 小子! 何莫學夫詩? 「子張」5장, 子夏曰 日知其所亡, 月無忘其所能, 可謂好學也已矣。「子張」6장, 子夏曰 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仁在其中矣。「子張」7장, 子夏曰 百工居肆以成其事, 君子學以致其道。「子張」13장, 子夏曰 仕而優則學, 學而優則仕。「子張」22장, 衛公孫朝問於子貢曰 仲尼焉學? 子貢曰 文武之道, 未墜於地, 在人。賢者識其大者, 不賢者識其小者, 莫不有文武之道焉。夫子焉不學? 而亦何常師之有?

문헌 공부를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실함, 반성, 조화로운 마음, 올바른 행동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자에게 배움은 상황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이 다르다³⁰⁾

『논어』에 64회 등장하는 學자의 의미를 분류하면 기술이나 지식을 탐구하는 것, 독서와 학문을 통해 인간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 성인의 도덕적인 삶을 본받아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술이나 지식을 구하는 구절을 알아보겠다. “자장이 녹봉에 대해 배우고자 했다”³¹⁾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관직에 나아가 봉급을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있다. “번지가 곡식 기르는 법을 배우기를 청하였다”³²⁾, “채소밭 가꾸는 법을 배우기를 청하였다.”³³⁾라는 구절은 농사와 원예에 대한 기술 배우기와 연관이 있다. 공자에게 “위나라 영공이 진법을 물었다.”³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군대를 통솔하는 전문적인 기술 배우기와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논어』에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자하는 사람들의 물음이 나오지만 공자는 이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지식을 배우려고 한다. 공자도 이러한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하질서와 선후관계가 어지럽혀진 세상에서 그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도리를 배우는 것이 더 우선적이며 중요하다는 것이 공자의 입장이다.

두 번째, 독서와 학문을 통해 인간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하는 배움이 있다. 이것은 “군자가 문(文)을 널리 배우고, 예로써 단속한다면 또한 거의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³⁵⁾라고 한 부분과 “나에게 몇 년을 더하여 마침내 역(易)을 배울 수 있다면, 크게 허물이 없을 수 있으리라!”³⁶⁾라고 한 부분에서 드러난다. 또한 공자는 자기 아들인 백어에게 “시(詩)를 배우지 않으면 말할 수 없

30) 심승환, 「공자의 교육사상에 나타난 ‘배움(學)’과 ‘사고(思)’의 관계에 대한 고찰」, 『교육철학』제47집, 2010, 82~83쪽 참조.

31) 『論語』「爲政」: 子張學干祿.

32) 『論語』「子路」: 樊遲請學稼.

33) 『論語』「子路」: 請學爲圃.

34) 『論語』「衛靈公」: 衛靈公, 問陳.

35) 『論語』「雍也」: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36) 『論語』「述而」: 加我數年, 五十以學易, 可以無大過矣!.

다.”³⁷⁾라고 하고, “예(禮)를 배우지 않으면 설 수 없다”³⁸⁾라고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찌하여 시(詩)를 배우지 않느냐? 시(詩)는 감흥 시킬 수 있고, 관찰하여 안목을 기를 수 있으며, 무리지어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으며,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길 수 있고, 멀리는 임금을 섬길 수 있으며, 새와 짐승 및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한다.”³⁹⁾라고 하였다.

위의 구절들은 독서와 학문을 통해 인간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문(文)이란 『시』·『서』·『예』·『악』·『역』과 같은 고전을 일컫는다. 이 고전들은 한편으론 각각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고전에 대한 폭넓은 독서와 학습은 인격수양에 도움을 준다.

이런 이유로 공자는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르침에 부류가 없다”⁴⁰⁾라고 하여,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의 도(道)를 가르치고자 하였다. 이것은 빈부, 귀천, 출신, 나이를 불문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배울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점은 공자의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컨대 자공과 염유는 부유했지만 안회는 가난하였고, 맹의자는 신분이 높았으나 자로는 신분이 낮았다. 안회는 지혜로웠지만 고시는 어리석었으며, 안로(顏路)는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어렸다. 또한 국적도 다 달랐다. 예를 들면 자연은 노나라 출신이고, 자하는 위나라 출신이며, 자장은 진나라 출신이고, 자사는 송나라 출신이었다.⁴¹⁾ 공자가 이렇게 배움에 차별을 두지 않은 것은 배움을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세 번째, 배움은 궁극적으로 도(道:진리)의 실현을 지향한다. 정이(程頤, 1033년~1107년)의 견해에 의하면 배움에는 사장(詞章)의 배움, 훈고(訓詁)의

37) 『論語』「季氏」: 不學詩, 無以言.

38) 『論語』「季氏」: 不學禮, 無以立.

39) 『論語』「陽貨」: 子曰 小子 何莫學夫詩?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鮮, 可以怨, 遷之事父, 遠之事君, 多識 於鳥獸草木之名.

40) 『論語』「衛靈公」: 有教無類.

41) 공한수, 『공자가 살아야 인류가 산다』, 행복에너지, 2014, 35~36쪽 참조.

배움, 유학자들의 배움 등이 있다. 그에 따르면 「학이」 1장에서 말하는 배움 이란 사장의 배움이나 훈고의 배움이 아니라, 도(道)와 관련된 유학자의 배움이다.⁴²⁾ 여기서 유학자의 배움이란 성인의 도덕적인 삶을 본받아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다.⁴³⁾ 주희는 이에 대해 “사람의 본성은 모두 선하지만, 깨달음에는 선후가 있다. 뒤에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선을 밝히고 그 처음을 회복할 수 있다.”⁴⁴⁾라고 하였다.

자공은 “문왕과 무왕의 도가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아 사람들에게 남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큰 것을 기억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작은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문왕과 무왕의 도가 있지 않음이 없으니, 공자께서 어찌 배우지 않으시며 또한 어찌 일정한 스승이 계시겠는가?”⁴⁵⁾라고 하였다. 이것은 공자가 문왕과 무왕의 도를 체득하고 깨달았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는 도를 도모하고 밥을 도모하지 않는다. 밥을 짧에 굽 주림이 그 가운데에 있고 학문을 함께 녹(祿)이 그 가운데 있으니, 군자는 도를 걱정하고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⁴⁶⁾라고 한다. 또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한다.”⁴⁷⁾라고 하였으며, “군자는 배워서 그 도를 지극히 한다.”⁴⁸⁾라고 하였다.

42) 이철승, 「『논어』의 ‘학이’ 1장에 나타난 배움과 익힘의 논리와 의미-주희와 왕부지의 관점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59집, 2008., 329쪽 참조.

43) 이철승, 앞의 논문, 327쪽 참조.

44) 『論語集注』「學而」 朱熹註: 人性皆善, 而覺有先後. 後覺者必效先覺之所爲, 乃可以明善而復其初也. (金赫濟 校閱, 明文堂, 2014, 7쪽)

45) 『論語』「子張」: 文武之道, 未墜於地在人. 賢者識其大者, 不賢者識其小者, 莫不有文武之道焉, 夫子焉不學而 亦何常師之有?

46) 『論語』「衛靈公」: 君子謀道不謀食. 耕也餕在其中矣, 學也祿在其中矣, 君子憂道, 不憂貧.

47) 『論語』「陽貨」: 君子學道則愛人.

48) 『論語』「子張」: 君子學以致其道.

제3장 배움[學]과 생각[思]

제1절 수양(修養)과 배움[學]

공자는 “나는 열 다섯에 배움에 뜻을 두었다”⁴⁹⁾라고 말했다. 이 때의 배움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수양과 도를 추구하는 배움이다.⁵⁰⁾ 이것은 애공파의 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애공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배우기를 좋아하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안화라는 자가 있어서 배움을 좋아하여, 화난 것을 옮기지 않았고, 잘못을 다시 하지 않았는데, 불행히 단명하여 죽었습니다.”⁵¹⁾ 이 대화에서 공자는 안화가 했던 공부의 내용이 지식 향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격수양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공자에게 배움은 수양의 전제조건이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기록을 중시하여 공자 당시에 많은 책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책을 통한 배움은 책 속에서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접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거울삼는 것이다. 공자는 “너희들은 어찌 시를 배우지 않느냐?”⁵²⁾라고 하여, 제자들에게 시를 공부하도록 했다. 『시』 삼 백편을 한 마디로 개괄하자면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⁵³⁾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은 시를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공자는 『시』·『서』와 같은 고전을 배움의 자료로 삼았으며, 이렇게 배운 내용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 인격적 수양을 이루고자 하였다.

공자는 “배우고 때에 맞게 익힌다.”⁵⁴⁾라고 하여 일차적인 지식을 배울 것을 말한다. 그 지식은 주나라의 예악이다. 그는 요순 이래의 중국 문화를 집대성

49) 『論語』「爲政」: 十有五而志于學。

50) 풍우란, 『중국철학사』, 박성규 옮김, 까치글방, 2015, 98쪽 참조.

51) 『論語』「雍也」: 哀公問弟子孰爲好學? 孔子對曰, 有顏回者好學, 不遷怒, 不貳過, 不幸短命死矣。

52) 『論語』「陽貨」: 小子, 何莫學夫詩?

53) 『論語』「爲政」: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思無邪。

54) 『論語』「學而」: 學而時習之。

했고, 주대(周代)의 문물을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여겼다. 그는 주나라 문화를 부흥시켜 이미 완성된 예악을 배우고 이 예악에 따라 행하게 되면, 마음이 순수해져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예를 배우지 않으면 설 수 없다”⁵⁵⁾라면서, 예와 관련된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에 『시』·『서』와 예를 지키는 일에 대하여 말하였으며⁵⁶⁾, 옛 것을 좋아하고 민첩하게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었다.⁵⁷⁾

『시』·『서』와 같은 고전이 지식과 지혜를 얻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지도, 거기에 담긴 내용은 옛 성현의 도덕적인 삶을 본받아 불선(不善)을 경계하고 선을 지향하는 것이다. 공자는 『논어』「술이」편에서 “세 사람이 동행하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 선한 점을 택하여서 따르고, 그 불선한 점을 가려서 고쳤다.”⁵⁸⁾라고 하였다. 공자는 선한 자를 보면 그와 같아지기 위해 본받고 노력하며, 불선한 자를 보면 속으로 반성하여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했다. 이것을 보면 공자의 배움은 단순히 지식 충족에 있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아 불선을 고치는 경험을 통한 인격 성장에 주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⁵⁹⁾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도를 깨닫기 원했다. 도가 무엇인지만 안다면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생각했다. 또 “선비가 도에 뜻을 두고서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도를 함께 의논할 수 없다.”⁶⁰⁾라고 하여, 흔히 말하는 안락한 삶의 조건인 좋은 옷이나 맛있는 음식 등을 원하는 마음이 도를 앞서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인간의 삶에는 도가 있으며 인간은 도를 실현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는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배움의 주 대상이기 때문이다.⁶¹⁾

결국 공자에게서 도의 실현은 인을 행하는 수양과 깊게 관계 한다. 인은 다

55) 『論語』「季氏」: 不學禮, 無以立。

56) 『論語』「述而」: 子所雅言, 詩·書·執禮, 皆雅言也。

57) 『論語』「述而」: 好古敏以求之者也. 참조.

58) 『論語』「述而」: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

59) 『論語』「里仁」: 朝聞道, 夕死可矣.

60) 『論語』「里仁」: 土志於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61) 이광호, 「공자의 학문관」, 『동서철학연구』제20호, 2000, 118쪽 참조.

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사람을 사랑한다.”⁶²⁾라는 것과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⁶³⁾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아끼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이다.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⁶⁴⁾,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을 서게 하라”⁶⁵⁾라고 하여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리는 마음을 강조한다. 공자가 말한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여 일상생활에서 덕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단지 자신만의 도덕적 완성을 바라지 않는다. 그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사욕을 극복하여 보편적인 질서의식을 회복하는 것을 수양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인을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⁶⁶⁾ 따라서 공자가 말하는 인의 구체화는 자신의 인격 수양과 이를 토대로 하는 의(義)의 실현이다. 이것은 내성외왕(內聖外王)의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관계 윤리의 유기적인 통일의 상태를 의미한다. 공자가 자기를 닦음으로써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고 한 내용은 자신의 인격 수양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의 실현이란 불가능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의의 실현과 무관한 자신의 인격 수양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⁶⁷⁾

이처럼 공자는 인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노력을 배움으로 여긴다. 공자에게서 배움은 행함을 배제한 지식의 획득이나 지적 호기심의 충족이 아니다. 배움은 인간이 따라야 할 규범을 알고 지킴으로써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⁶⁸⁾ 이 때문에 공자는 인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인의 덕목을 제시하였으며, 인을 행하여 성인이 되는 것을 최종의 목표로 삼았다.⁶⁹⁾

62) 『論語』「顏淵」: 愛人。

63) 『論語』「顏淵」: 克己復禮爲仁。

64) 『論語』「顏淵」: 己所不欲, 勿施於人。

65) 『論語』「雍也」: 己欲立而立人。

66) 『論語』「顏淵」: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67) 이철승, 「현대 사회에서 仁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까? - 공자의 ‘先難後獲’의 논리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제61집, 2015, 234쪽 참조.

68)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2011, 예문서원, 374쪽 참조.

69) 이철승, 「현대 사회에서 仁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까? - 공자의 ‘先難後獲’의 논리를 중심

인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공자는 “내가 인하고자 하면 곧 인에 이른다.”⁷⁰⁾라고 한다. 이것은 자신의 주체적인 생각과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가능하다. 공자는 인이 본래 자신 안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지만, 이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한 동시에 자각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인을 행하는 출발점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배우는 사람들이 부적절한 자기 행위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를 바랐다.⁷¹⁾

제2절 배움[學]과 생각[思]의 관계

공자에게 배움은 행함과 깊게 관계한다. 올바른 행함을 위해서는 맹목적인 배움보다, 배우면서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자기 행위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면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은 또한 외부로부터 주어진 여러 자료를 이해하여, 그 의미를 유추하고 확장시킨다는 뜻을 가진다. 공자는 이러한 생각의 의미를 살려 배움에 임할 것을 강조하였다. 하나를 들으면 그것을 유추하여 열을 깨닫는 것을 칭찬하였고, 하나를 알려주면 그것을 통해 창의적으로 응답할 것을 권고하였다. 공자는 능동적인 배움과 주체적인 생각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⁷²⁾

이 때문에 공자는 어떤 것을 가르칠 때에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그 속에 함축된 근본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였고, 기존 내용으로부터 유추하여 창의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시』와 『서』에 담긴 도덕적 의미와 교훈을 도출하여, 제자들이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공자의 제자들과 후대 유학자들은 공자의 정신을 계승하여 공자가 기술한 내용을 보완하고 심화 발전시켰기 때문에 공자의 사상은 갈수록 풍부해졌다. ‘생각’에 대한 공자의 기본적인 입장은 “옛 것을 연구하여 새로운

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1집, 2015, 234쪽 참조.

70) 『論語』「述而」: 我欲仁, 斯仁至矣.

71) 『論語』「衛靈公」: 君子求諸己. 참조.

72) 심승환, 「공자의 교육사상에 나타난 ‘배움(學)’과 ‘사고(思)’의 관계에 대한 고찰」, 『교육철학』 제47집, 2010, 92쪽 참조.

것을 안다.”⁷³⁾라는 관점이다. ‘옛 것’의 좁은 의미는 고전이나 기타 전승된 문헌이지만, 넓게는 전통적인 문화를 포괄한다.⁷⁴⁾

우리는 책 속에 담긴 지식을 접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해 그 행위에 담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해석하여 자신의 인격적 수양을 도모한다. 이것이 공자가 보는 ‘생각’의 요지이다. 여기서 생각의 주된 내용은 기술이나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이다. 이 때문에 공자는 어진 이를 보면 그와 같이 되려고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이를 보면 혹시 나도 그렇지 않은지를 안으로 스스로 반성해 보면, 이익을 눈앞에 두고 그것이 의에 부합하는지를 생각(思)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⁷⁵⁾

공자는 생각을 배움과 연관 짓는다. 공자는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⁷⁶⁾라고 말한다. 배우기만 하고 배운 것을 반성적으로 되새기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구체적인 사실과 경험을 통해 검증하지 않으면 주관적 독단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은 배울 때에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주체적인 생각을 동반하기 때문에 배운 지식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획득된 지식은 참다운 지식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나의 주체적인 생각이 개입하여 명석하고도 판명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⁷⁷⁾

이러한 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할 때에 독단적인 아집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주체적으로 사유하면서 역사적으로 축적된 내용을 배움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때 배움의 대상은 해당 지식뿐만 아니라, 보편적 가치와 바른 인생관의 정립 등을 포함한다. 만일 사회적으로 축적된 지혜를 배움

73) 『論語』「爲政」: 溫故而知新.

74) 심승환, 「공자의 교육사상에 나타난 ‘배움(學)’과 ‘사고(思)’의 관계에 대한 고찰」, 『교육철학』제47집, 2010, 92쪽 참조.

75) 임원빈, 「공자의 ‘학(學)’에 관한 연구 - 『논어』를 중심으로」, 『공자학』제1집, 1995, 336~337쪽 참조.

76) 『論語』「爲政」: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77) 이철승, 「배움과 생각사이」, 『조선대학교 소식』, 교수칼럼, 2013, 11월호, 33쪽 참조.

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공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인 배움과 주체적인 생각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을 주문한다.⁷⁸⁾

공자는 “내 일찍이 종일 토록 밥을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서 생각해 보니 유익함이 없었다. 배우는 것만 못했다.”⁷⁹⁾라고 고백한다. 생각을 하더라도 배움을 기본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문자가 세 번 생각한 뒤에 행하였는데,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하기를 두 번이면 된다.”⁸⁰⁾라고 하였다. 이처럼 공자는 생각만 많이 하는 것을 경계한다. 한편 공자의 제자 자장은 “이익을 보고 의를 생각하며, 제사에 공경함을 생각하며, 상사(喪事)에 슬픔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괜찮다.”⁸¹⁾라고 한다. 그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도덕적 판단과 관련이 있는 덕목이나 정서를 생각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 배움은 도덕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생각 역시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도덕적 행위를 지향하고 있다.

78) 이철승, 위의 책, 33쪽 참조.

79) 『論語』「衛靈公」: 吾嘗終日不食, 終夜不寢, 以思, 無益. 不如學也.

80) 『論語』「公冶長」: 季文子三思而後行, 子聞之, 曰 再斯可矣.

81) 『論語』「子張」: 見得思義, 祭思敬, 喪思哀, 其可已矣.

제4장 배움[學]과 익힘[習]

제1절 배움[學]의 방법

공자가 제시한 배움의 방법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공자가 제시한 배움의 방법은 안연의 회상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안연은 공자에 대해 “우러러보니 더욱 높고, 뚫으려 하면 더욱 단단하다. 바라보면 앞에 있다가 갑자기 뒤에 계시도다. 선생님께서는 순서에 따라 사람을 잘 인도하여, 글로써 나를 넓혀 주시고, 예로써 나를 단속해 주셨다. 그만두려 해도 그만둘 수 없어 이미 나의 재능을 다하니 우뚝하게 서서 계신듯하여 따르려 하지만 따라갈 수 없네.”⁸²⁾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순서에 따라 사람을 잘 인도하여, 글로써 나를 넓혀 주시고, 예로써 나를 단속해 주셨다”라는 구절은 공자의 교육 방법이자 학문 방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글로써 나를 넓혀 주셨다’는 것은 고금의 역사와 여러 문현을 통하여 삶의 도에 대한 이해를 넓혀 준 것이며, ‘예로써 나를 단속해 주셨다’는 것은 삶의 도를 행하도록 안내해 준 것이다. 삶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가고 수양을 쌓아 가는 가운데 도를 체득하여 도와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공자의 학문 방법이다. 공자는 한편으로 글을 통해서 도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자신의 삶 자체를 통해 도를 알려주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며 행하도록 하였다.⁸³⁾ 이 때문에 “공자는 네 가지로써 가르쳤는데, (그것은)글·행동·총실험·신실험이다.”⁸⁴⁾ 여기서 글은 이해의 세계를 넓혀 주는 것이며, 행동·총실험·신실험은 도덕적 행위의 지속성을 담보해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자는 “제자는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손하며,

82) 『論語』「子罕」: 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在後. 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 欲罷不能, 既竭吾才, 如有所立卓爾. 雖欲從之, 未由也已.

83) 이광호, 「공자의 학문관」, 『동서철학연구』제20호, 2000, 121쪽 참조

84) 『論語』「述而」: 子以四教, 文行忠信.

삼가고 진실하고, 널리 백성을 사랑하며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행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글을 배워라.”⁸⁵⁾라고 했다. 이 구절은 행하는 것과 아는 것이 배움 공부의 두 측면임을 보여준다. 유학에서는 지(知)와 행(行)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 풍부하다. 行은 갑골문에서 사람이 오가는 사거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설문해자』에서는 行자에 대하여 ‘인간의 걸음걸이이며, 彳과 亍이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⁸⁶⁾ “彳(척)은 ‘조금 내딛다’, 亍(촉)은 ‘멈추다”⁸⁷⁾라는 뜻이 있다. 行은 한 발 내딛고 멈추고 다시 한 발 내딛고 멈추는 ‘행위’이다. 行자는 이처럼 ‘무엇인가를 하다’라는 뜻이 있다.

또한 공자는 “배움은 아직 이르지 못한 듯이 하고,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해라.”⁸⁸⁾라고 하였다. 배울 때에는 항상 부족한 점을 생각하며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려고 애써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예컨대 책을 읽을 때에 잘 이해하지 못한 점이나 잘못 이해한 점이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 반성은 선생이나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아 도움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 그 미친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읽고 다른 부분과 관련지어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 이해한 내용은 반복해서 보고 현실상황에 적용함으로써 그 지식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어 잊어버리지 않게 붙잡아 두어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리 지식을 주입시키려 해도 배우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깊이 있는 이해가 어렵다. 또 자기 자신의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보상 등의 조건이 사라지면 금방 잊고 만다. 따라서 배움을 위한 기본 전제는 배우는자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이다.⁸⁹⁾

그래서 공자는 말한다. “분발하지 않으면 개발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으면 설명해주지 않되, 한 모퉁이를 들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는 가르쳐주지 않았다.”⁹⁰⁾ 공자의 이러한 교육방식은 자신의 공부 태도에서 비롯된다.

85) 『論語』「學而」: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86) 이철승, 「현대사회에서 仁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까? -공자의 ‘先難後獲’의 논리를 중심으로-」『유교사상문화연구』제61집, 2015, 229쪽 참조.

87) 漢·許慎撰/清·段玉裁注, 『新添古音說文解字注』: 彳小步也, 亍步止也. 洪葉文化事業有限公司, 2013, 78쪽

88) 『論語』「泰伯」: 學如不及, 猶恐失之.

89) 심승환, 「공자의 교육사상에 나타난 ‘배움(學)’과 ‘사고(思)’의 관계에 대한 고찰」, 『교육철학』제47집, 2010, 90~91쪽 참조.

90) 『論語』「述而」: 不憤不啓, 不悱不發, 舉一隅不以三隅反, 則不復也.

“너는 어찌 말하지 아니 하였느냐? 그 사람됨이 분발하여 먹을 것을 잊고, 즐김으로써 근심을 잊어 늙음이 장차 이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다고 말하지 않았느냐?”⁹¹⁾ 공자의 이 말은 자신이 공부할 때 분발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므로 흥미가 솟아나고 즐거워 근심을 잊을 수 있으며, 계을리 하지 않기 때문에 분발하여 먹는 것도 잊을 수 있다. 분발하여 싫증내지 않음과 계을리 하지 않음은 ‘공자의 공부방법’⁹²⁾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된다.⁹³⁾

제2절 배움[學]과 익힘[習]의 지향

공자가 배우기를 좋아하여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였다는 말은 자신이 배운 것을 익히고 또 익혔다는 것을 뜻한다. 익힘을 의미하는 ‘習’자는 새가 자주 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 뜻은 배운 것을 반복적으로 익힌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키고 가꾸어야 할 윤리적인 내용을 쉬지 않고 행하며 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자는 제대로 배우고 성실하게 익히는 것을 통해 갖게 되는 기쁨, 같이 공부했던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옴으로 인해 갖게 되는 즐거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않는 것을 통한 군자다운 삶을 중시한다.⁹⁴⁾ 『논어』『학이』편 첫 구절의 “배우고 때에 맞게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⁹⁵⁾라는 문장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⁹⁶⁾라는 문장

91) 『論語』「述而」: 女奚不曰? 其爲人也, 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云爾?

92) 공자의 이러한 배움의 방법은 공자 이후의 유학에서 보편적인 학문 방법으로 정착된다. 『대학』의 격물致知(格物致知)와 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에서 격물치지는 사물의 이치에 대한 탐구를 말하고, 성의·정심·수신은 수양 공부를 말한다. 또한 『중용』의 택선(擇善)·명선(明善)은 올바른 가치를 알아가는 공부를 의미하고, 고집(固執)과 성신(誠身)은 수양 공부를 말한다. (이광호, 「공자의 학문관」, 『동서철학연구』제20호, 2000, 122쪽 참조.)

93) 채인후, 『공자의 철학』, 천명돈 옮김, 예문서원, 2000, 55~56쪽 참조.

94) 이철승, 『『논어』의 ‘학이’』1장에 나타난 배움과 익힘의 논리와 의미-주희와 왕부지의 관점을 중심으로, 『중국학보』제59집, 2008, 327쪽 참조.

95) 『論語』「學而」: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96) 『論語』「學而」: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과 짹을 이루어 배움을 통한 기쁨과 그러한 기쁨을 느끼는 사람끼리 만나는 즐거움을 서술하고 있다. 바로 뒤의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닌가?”⁹⁷⁾라는 구절 역시 배우는 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배움의 즐거움이 충만하니,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⁹⁸⁾

여기에서 배우는 기쁨이란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때에 맞게 익혀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것은 배우기만 하고 그 배운 것을 때에 맞게 익히지 않으면 기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⁹⁹⁾

이에 대해 주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배운 것을 때에 맞게 익혀야 한다. 익힌 것이 익숙함에 이른 후에야 자연히 기뻐져서 스스로 그칠 수 없다.…… 배우더라도 익히지 않으면 결과 속이 어그러져서 그 배움을 이루는 도가 없게 될 것이다. 익히더라도 때에 맞게 하지 않으면 공부가 사이에서 끊어져 그 익힘을 이루는 효과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 마음속에서 비록 힘써서 스스로 나아가고자 하더라도 또한 건조하여 땅음이 생기기 때문에 맛을 즐길 수 없고, 위태하고 불안하여 편안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미 배운 것을 또 반드시 때에 맞게 익히면 그 마음과 이치가 서로 젖어서 아는 것이 더욱 정밀해질 것이고, 몸과 일이 서로 편안해져서 할 수 있는 것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조용히 아침과 저녁으로 굽어 살피고 우러르는 가운데 배워서 알거나 할 수 있는 이것은 반드시 마음에서 저절로 깨닫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말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 마음속에서 태연히 기뻐하는 맛이니, 비록 개나 돼지가 입에서 기뻐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충분하게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배움의 시작이다. 배움이 기쁨에 이를 때에는 이미 한 단계 나아갔으니, 단지 기쁨 뒤에 스스로 머무를 수 없다.”¹⁰⁰⁾

97) 『論語』「學而」：人不知而不慍，不亦君子乎？

98) 이광호, 「공자의 학문관」, 『동서철학연구』제20호, 2000, 123쪽 참조.

99) 이철승, 「『논어』의 ‘학이’ 1장에 나타난 배움과 익힘의 논리와 의미-주희와 왕부지의 관점을 중심으로」, 『중국학보』제59집, 2008, 332쪽 참조.

100) 이철승, 앞의 논문, 332~333쪽 재인용. (『論語集註大全』卷之一, 「學而第一」：學要時習，習到熟後，自然說喜，不能自已。…… 學矣而不習，則表裏不格，而無以致其學之之道。則工夫間繼，而無以成其習之之功。是其胸中雖欲勉焉以自進，亦且枯燥生澀。而無可嗜之味，危殆杌陧，而無可即之安矣。故既學矣，又必以時習之，則其心與理相涵，而所知者益精，身與事相安，而所能者益固。從容於朝夕府仰之中，凡其所學而知且能者，必有自得於心，而不能以語人者，是其中心油然悅懌之味，雖芻豢之悅於口，不足以喻其美矣。此學之始也。學到說時，已是進了一步，只說後

주희에 의하면 사람이 갖추어야 할 도리를 제대로 배워서 익숙하게 행하면 기쁨이 마음속에서 저절로 형성된다. 기쁨의 전제는 행함이 없이 이론적인 앎에만 치중하거나 이론적인 앎을 배제한 채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모습을 본받는 배움과 이 배움을 몸으로 체득할 때까지 익숙하게 연습하여 때에 알맞게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⁰¹⁾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의 문장에서 ‘즐거움’의 상태는 개인적인 상황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태이다. 다른 사람들이란 스승이 같은 동문들끼리 교류하면서 갖게 되는 즐거움을 말한다.¹⁰²⁾

“정자가 말했다. 선함을 남에게 미쳐서 믿고 따르는 자가 많다. 그러므로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또 말했다. 기쁨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즐거움은 발산함을 위주하니 외면에 있는 것이다.”¹⁰³⁾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으니, 또한 군자가 아닌가”라는 구절의 군자는 유학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을 말한다. 공자 이전의 군자는 왕족이나 귀족 등의 아들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 등 지배층을 지칭했으나, 공자 시대에 이르러 도덕적인 수양을 갖춘 인간의 의미로 전환되었다.¹⁰⁴⁾ 이에 대해 주희는 “군자는 덕을 완성한 이의 명칭이다.”¹⁰⁵⁾라고 하였다.

군자는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분파를 형성하지 않는다. 군자는 잘못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린다. 군자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며, 성냄을 다른 이에게 옮기지 않는다. 군자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부당한 일을 남에게

便自住不得.

101) 이철승, 앞의 논문, 333쪽 참조.

102) 이철승, 「『논어』의 ‘학이’1장에 나타난 배움과 익힘의 논리와 의미-주희와 왕부지의 관점 을 중심으로」, 『중국학보』제59집, 2008, 334쪽 참조.

103) 『論語集註』, 「學而」 朱熹註: 程子曰. 以善及人, 而信從者衆 故可樂. 又曰. 說在心, 樂主發散在外. (金赫濟 校閱, 明文堂, 2014, 8쪽)

104) 『論語』「憲問」: 子路問君子. 子曰. 修己以敬. 참조.

105) 『論語集註』, 「學而」 朱熹註: 君子, 成德之名. (金赫濟 校閱, 明文堂, 2014, 8쪽)

시키지 않으며,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을 남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다.¹⁰⁶⁾

공자는 이러한 배움과 익힘을 통해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해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¹⁰⁷⁾라고 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그가 배움과 익힘을 통해 도에 도달하는 삶을 지향했음을 의미한다.¹⁰⁸⁾

106) 이철승, 「『논어』의 ‘학이’1장에 나타난 배움과 익힘의 논리와 의미-주희와 왕부지의 관점 을 중심으로」, 『중국학보』제59집, 2008, 336쪽 참조.

107) 『論語』「爲政」: 從心所欲, 不踰矩.

108) 『論語』「憲問」: 下學而上達. 참조.

제5장 결 론

이 논문은 『논어』의 첫 구절이 배움[學]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에 착안하여 배움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와, 배움과 생각 및 배움과 익힘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공자는 배움을 천하유도(天下有道)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한다. 공자는 올바른 가치 판단과 그 실현을 위해 수동적인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주체적인 생각과 능동적인 행위로 나아가는 익힘의 과정을 중시하였다.

공자는 배움의 대상을 『시』·『서』와 같은 문헌에 한정 시키지 않는다. 중국 고대에서 배움은 가르침과 서로 긴밀하게 관계한다. 『논어』에서는 배움을 ‘본받음’을 뜻하는 효(效)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성현의 경험과 지식 및 가르침을 본받는다는 뜻이다.

공자에게 배움은 궁극적으로 인을 행하는 것이다. 『논어』의 핵심 사상인 인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의 사욕을 이겨서 예로 돌아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이며, 예로 돌아간다는 것은 개인의 사욕을 극복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덕을 행하는 것이다.

공자는 보편적인 질서의식을 회복하는 것을 인의 구현으로 여기고, 그 인을 남이 아닌 자신이 먼저 행하기를 요구한다. 공자에게 인의 구현은 자신의 인격 수양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배움이 요구된다.

배움이란 인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는 배움은 지식의 획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배운 내용을 도덕적인 삶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배울 때에 주체적으로 생각할 것을 주문한다. 왜냐하면 주체적인 생각이 결여된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획득된 지식은 참다운 지식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논어』에서 배움의 본질적인 의미는 주체적인 생각을 통해 배우고 그

것을 성실하게 익혔을 때 맛보는 내면의 기쁨, 함께 공부했던 벗들이 찾아올 때 만끽하는 즐거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는 군자다운 삶이다.

참고문헌

1. 원전

『論語』

『孟子』

『書經』

『禮記』

『論語集註』, 金赫濟 校閱, 明文堂, 2014.

『新添古音說文解字注』 漢·許慎撰/清·段玉裁注, 洪葉文化事業有限公司, 2013.

2. 단행본

김성재, 『갑골에 새겨진 신화와 역사』, 동녘, 2000.

공한수, 『공자가 살아야 인류가 산다』, 행복에너지, 2014.

남상호, 『공자의 공부론』, 예문서원, 2007.

남상호, 『육경과 공자인학』, 예문서원, 2003.

풍우란, 『중국철학사』, 박성규 옮김, 까치글방, 2015.

알프레드 포르케, 『중국고대철학사』, 양재혁·최해숙 역주, 소명출판, 2004,

채인후, 『공자의 철학』, 천병돈 옮김, 예문서원, 2000.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2011, 예문서원.

3. 논문

박성규, 「공자의 학문론-“學而不固”의 해석을 중심으로」, 『공자학』11권, 2004.

서근식, 「『논어』『학이』 1장의 解釋學的 研究」, 『동양고전연구』제32호, 2008.

신창호, 「동양의 교육 전통에서 ‘배움’의 의미-원시유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철학』제33집, 2007.

심승환, 「공자의 교육사상에 나타난 ‘배움(學)’과 ‘사고(思)’의 관계에 대한 고찰」, 『교육철학』제47집, 2010.

이경무, 「‘학(學)’과 공자 인학(仁學)」, 『동서철학연구』제43호, 2007.

- 이광호, 「공자의 학문관」, 『동서철학연구』제20호, 2000.
- 이재권, 「孔子의 學習觀-전통적 해석을 중심으로」, 『대동철학』제24집, 2004.
- 이철승, 「유가철학에 나타난 충서(忠恕)관의 논리 구조와 현실적 의미」, 『중국학보』제58집, 2005.
- 이철승, 「『논어』의 ‘학이’1장에 나타난 배움과 익힘의 논리와 의미-주희와 왕부지의 관점을 중심으로」, 『중국학보』제59집, 2008.
- 이철승, 「현대 사회에서 仁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할까? -공자의 ‘先難後獲’의 논리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제61집, 2015.
- 임원빈, 「공자의 ‘학(學)’에 관한 연구-『논어』를 중심으로」, 『공자학』제1집, 1995.
- 임현규, 「『논어』에서 學의 의미」, 『東方學』제33집, 2015.

4. 학위논문

- 서세영, 「『논어』에 나타나는 배움의 의미」, 한국외대 석사논문, 2009.

5. 기타

- 이철승, 「배움과 생각사이」, 『조선대학교 소식』, 교수칼럼, 2013, 11월호.